

# 기독교 문화운동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에서의 기독교대학

Right Direction of Christian Culture Movement  
and Christian University in Korea

제 양 규

## 1. 들어가면서

84년 기독교대학 설립동역에 대한 안내 팸플렛 1판이 나온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당시 막연히 10년 후에 기독교대학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운영방법, 모집대상, 건물 등을 가슴설레이며 이야기 나누었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많은 동역회원들이 모였고 집담회 등 많은 활동이 있었으며 많은 책들을 출판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1989년 11월 대덕에서 있었던 동역 회의에 참석하고 난 다음 여러가지 깊은 회의가 들었음을 고백한다. 기독교대학의 비전이 처음보다 오히려 더욱 추상적이 되고 더욱 막연해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많은 동역회원들이 그동안 모였지만 각각 동상이몽일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독교대학의 설립을 위해 초점이 모아진 것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대학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교육에의 비전이다. 교육에의 비전은 곧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비전이다. 잘못된 유물론적 교

육의 피해와 그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가능성보다 필요성에 강하게 도전받아 비전이 잉태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대학의 비전이 오히려 더 막연해지고 활동의 많은 부분이 다른 곳에 치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문화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문화와 사람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지만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문화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II. 기독교 문화운동의 올바른 방향

### 1. 인간과 피조물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였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였다. 성경에서 죄

란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죄라고 하였다(요16:9).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 즉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다.

피조물(인간 외)은 모습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루실 때 인간과 분리해서 다루지 않으셨고 인간에게 맡겨진 존재로서 다루셨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피조세계도 함께 저주하셨다. 피조물은 스스로 책임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피조물을 대표하는 인간이 죄를 지어 그 죄에 대하여 추궁당할 때 함께 저주를 받았다. 또 피조물이 죄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피조물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원받고 죄로부터 회복될 때 비로소 저주로부터 회복된다.

죄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인간은 스스로 지은 죄로 당연히 멸망받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박히셨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다루시는 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악에 대하여는 조금도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동시에 극명히 보여 주셨다.

타락 이후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는 역사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 지를 보여주시고, 결코 마귀 사탄이 승리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셨다.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파괴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재림하심으로 그 회복이 완성될 수 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함께 파괴된 것처럼 회복되어야 할 모든 것 중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더 강조하는 것은 좌로 치우친 사회복음이 되기 쉽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을 더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바벨탑이 되기 쉽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따라오는 열매요 결과이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강조하면 우로 치우친 개인 구원만 강조한 복음이 되기 쉽고 열매없는 죽은 신앙이 되기 쉽다.

기독교 문화운동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만을 강조했던 기존 신앙에 더하여 복음의 영역을 넓히며 이원론적인 신앙을 고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출발점과 강조점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모든 활동 중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차갑게 죽은 것이 될 수 밖에 없고 사랑 없는 팽과리가



## 필자소개

제양규 박사는 부산대를 졸업하였으며 KAIST에서 기계공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텍사스 A & M 대학 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해사기술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와 한국창조과학회 회원.

될 수 밖에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과 더불어 만물이 저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다른 모든 피조물을 함께 저주했었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성경에 드러난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 2. 인간과 문화

인간은 살면서 무엇인가 표현하며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표현된 삶의 총체적 양식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는 드러나게 표현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있다.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문화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문화는 곧잘 드러난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인의 신앙고백이며 표현이다. 구원받은 자는 삶의 표현인 문화 속에 그 신앙을 표현한다.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려고 할 때, 잘못된 신앙으로 형성된 기존 세속 문화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저항에 투쟁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이다. 문화속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얼마나 선포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 신앙의 정도에 달려 있다.

잘못된 문화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입술로 고백하는 바와 실제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바가 다르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거나 외식하는 자와 같은 신앙의 문제이고 잘못 알고 잘못 행한다면 그것은 왜곡된 신앙의 문제이다. 구조적인 성/속의 이분법에 의한 이원론은 왜곡된 신앙의 대표적인 예이다. 잘못된 문화는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해결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문화변혁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신앙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문화변혁은 있을 수 없고 혹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세계관 문제 역시 단순한 지식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세계관의 문제를 지식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현학적인 것이 되기 쉽고, 세계관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로 인한 내적 갈등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관은 세계관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전적으로 신앙의 문제이다. 기독교 문화운동에서 우리의 목표와 대상 그리고 그 방향을 조금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 3. 피조세계의 종말

이 글에서 다양한 종말론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조세계의 종말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지막 때 이 피조세계가 불타 없어진다는 소멸론과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이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혁주의적 갱신론이다. 브라이완 왈쉬는 <그리스도인의 비전>(IVP)에서 마24:36-41을 해석하면서 마지막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해석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일반적인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이땅이 천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남는 것이라 해석하므로 개혁주의적 갱신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송인규(최많은 이세상으로 충분한가, IVP)씨와 후크마(개혁주의 종말론, 기독교문서선교회) 등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개혁주의적 갱신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가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다(요14:2,3). 만약 이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하시는 그 곳,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곳을 버리고 이땅에 오실 것인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고 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신다 했다(히 11:13-16).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21:1)고 했으며 일어났던 노와의 홍수와 대귀적으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셨다고(벧후3:7-12)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마24:35, 시102:26, 사51:6)고 말씀 하셨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갱신론에선 피조세계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로부터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 이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계시록 21:1의 새하늘과 새땅은 헬라어 원어로 볼 때 시간이나 기원에서 전혀 새것(neos)이 아니라 본성이나 질에서 새롭다(kainos)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사탄이 deform 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reform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reform 할 수 없을 만큼 deform 되었다면, 그래서 불태워야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라 한다(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pp375-378).

이와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입으셨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계셨다. 부활의 첫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때 죄로 물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 했다(고전 15:42-29).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근본이나 기원이 완전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그래서 neos 가 아니라 kainos 이다. 만약 이땅이 천국이 된다면 새로운 몸 대신 벗어진 옛육신으로 인해 온통 쓰레기 투성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땅에 전혀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동물도 있을 것이다(사65:25).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땅에서의 동물들이 지금의 동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무엇을 또 다시 창조하시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땅,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구절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설사 새하늘과 새땅이란 표현에 kainos란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갱신론이 더 타당성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조금도 없다.

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러나 죄로 인하여 deform 되었던 모든 것이 반드시 reform 되어야 한다면,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로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로서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줄 모르지만 가령 전 인류의 반 정도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회복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할 나머지 반에 대해서 사탄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도 죄로 물든 처음 육신은 불태워지고 처음 창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탄에 의해 Deform된 것 중 reform 되어야 할 것보다 어쩌면 불로 태워져야 할 것이 더 많은지도 모른다. 죄로 물든 인간의 육신을 불태우듯이 이 피조세계를 불태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히려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폐할 수도 있는 분이시다.

개혁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고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구조와 방향을 주장한다. 구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의 성/속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느냐의 방향에 의한 성/속의 구분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설명은 세상의 많은 영역을 그리스도 앞으로 회복시키며 세상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케 하며 왜곡된 신앙을 회복하여 세상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절대화시키고 심지어는 그 구조속에 하나님조차 종속시키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허락하신 임시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논의로부터 문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필자는 성경에 나타난 종말론은 개혁주의적 갱신론보다 소멸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되었다는 베드로후서 3:7-12절의 말씀을 실제로 불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등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땅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땅의 문화에 집착하는 것인지, 이땅의 문화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갱신론적 종말론자들이 이땅의 문화를 강조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땅의 문화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바꿀만큼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땅에서의 문화활동은 문화 그 자체로서 작품으로서 어떤 영원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타난, 표현된 문화는 임시적인 것이며 어디까지나 시대성을 가진다. 수천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지만 지금은 낡았고 많은 것은 폐허가 되고 무덤이 되었다. 변함없는 것은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속의 역사이다. 문화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 또 해서도 안된다.

한 예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모습을 그려 왔다고 해보자. 아이의 그림을 미술작품으로 보면 형편이 없다. 그러나 그 그림을 벽에 걸어두는 이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린 그림이 하나님 나라에 걸려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그림이 꼭 걸려있어야 한다고, 즉 하나님 나라에 영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썼다가도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이땅에 기독교 문화운동이 있다면 그것은 이땅에 멋진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문화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신앙운동이 되어야 한다. 문화운동의 목표와 대상,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며 전도자적 심령으로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영적인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입되지만 드러난 문화, 표현된 문화는 피조 세계와 마찬가지로 불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의 중요한 한 사건을 생각해보자. 종말까지의 역사를 보여준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하는 중 다니엘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드린 돌이”(문화는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다.)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니이다.” (단2:34, 35)라고 말한다. 마지막때 사람의 손으로 된 문화는 없어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지금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에 영입된다면 일곱형제들이 부활했을 때 누가 아내를 취할 것이냐를 묻은 사두개인처럼(마22:22, 23) 구석기 시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21세기 과학기술 문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대학 설립의 제일의 목적은 이세상의 문화변혁에 있지 않다. 기독교대학은 이 세상 문화에 깊은 관심은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기독교대학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신앙인의 양육에 있다. 그러나 최근 기독교대학 설립의 활동이 학문적인 연구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밤을 새우면서 나누던 그 뜨거움보다 학술적인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기독교대학 설립의 비전 중 그러한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것 자체가 그 시작이 아니다.

### III. 한국에서의 기독교대학 -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독교대학 -

몇년전 포항공대를 방문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포항공대를 설립하면서 약 2,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고 그 후 계속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되어야 했다. 그래도 실험실을 방문했을 때는 아직 영성하였고 지금도 그 성공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를 보면서 기독교대학 설립이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 하지만 깊은 회의가 들었다.

기독교대학설립 동역안내 제2판을 보면 한국에서 앞으로 세워질 기독교대학은 이공계 중심의 대학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과학기술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고 둘째는 최고 공산권을 위한 평신도 선교사 양육이었다. 마지막으로 취

업문제 등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들은 바뀌어져서 동역안내서 제 3판에는 이공계 중심의 기독교 대학에 대한 생각이 빠져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특징이 사실 추구에 있다가 보다는 가치문제에 있다고 이야기 합는지 모른다. 사실 서구 기존의 기독교대학은 자연과학보다 인문과학 중심이고 직업교육 중심이라기보다 전인교육 중심이다. Wheaton대학은 대표적인 교양학과 중심의 대학이다.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기독교대학 설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부분에 치우쳐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에서의 기독교대학이 이공계 중심의 대학, 교양학과 중심의 대학, 혹은 사범대학 중심의 대학 중 어떤 것이 되어야 할는지 확실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엄청난 돈이 드는 이공계 중심의 대학이든지, 취업문제 등 한국에서는 여러 제약이 있는 교양중심의 대학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결코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해 얼마만한 돈과 인력과 시간 그리고 헌신이 필요할 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II장에서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기독교대학의 분명한 설립 비전과 목적이 먼저 충분히 새롭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대학이 성공하려면 잘 훈련된 유능한 교수진, 우수한 학생, 좋은 시설, 계속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것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실패할 것이라고 염려한다면 기독교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안이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런 조건은 아마 천국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염려가 우리의 소관은 아니지만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여러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기독교 대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첫번째 이유는 자기 전공분야에서 성경적 원리를 따라 훈련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의 문제였다.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제 가르치는 것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학문이기

러한 학생을 배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 훈련된 교수진은 기독교 대학의 기본요건이 되며 대학의 학문연구 기능과 함께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두번째 이유는 대학의 시간이 학생들에게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의 시간이 학생들의 인격이나 지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시기는 반드시 대학의 시간 뿐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참된 교육의 실존을 부르짖으며 염려하는 최근 교사들의 활동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강조되는 이유는 대학의 학문연구 기능 때문일 것이다. 단지 학생들의 성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중, 고등학교 시절이 더 중요할 지 모른다. 또 학생들의 인격과 지성 형성은 대학의 시간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경우에는 대학졸업 후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거나 학문의 뿌리를 되돌리는 수가 많다.

궁극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명실상부한 대학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간단계로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있는 혹은 기존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독교대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독교적 학문과 기존 학문의 차이는 사실의 차이라기보다 세계관의 차이이며 가치의 차이이다. 기존학문, 종사하고 있는 직업 등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새로운 조망 등을 통하여 그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쉬운 예로서 기존 기독교 중, 고등학교 교사를 위한 재교육, 또 허락된다면 그들 중 헌신된 자들을 모아 실제 기독교 중, 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들로부터 배운 졸업생들이 기독교대학이 세워졌을 때 진학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홍콩의 경우 하와이 PACU에서 훈련받은 기독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중, 고등학교의 입학 경쟁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독교대학을 생각 하더라도 결국 문제되는 것은 잘 훈련된 교수와 교과과정 등이다. 아울러 끊임없는 학문 연구 기능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

이 필요하다. 만약 서구의 기존 기독교대학으로부터 인력 등을 일부 도움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기존 각 분야의 직장에 종사하면서 야간 혹은 계절학기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서구 기존의 기독교대학에 가서 한 두 학기 정도 수업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인 기독교대학의 중간단계로서 이러한 기독교대학은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성패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 IV. 마치면서

기독교대학 설립과 많은 기독교 문화운동의 목적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 형성과 정에 기독교인을 양육하는데 있다. 우리에게 보여

진 가치적인 문화 그 자체를 개혁하는데 있지 않다.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돌이켜볼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학문적 활동과 더불어 그것을 이 사회에 적용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 지성인들과 피해의식적이며 고사화되어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호소해야 하며 새로운 정에 기독교인들을 양육해야 한다. 그러한 바른 신앙인의 양육이 우리의 중심에 없다면, 그것이 모든 활동의 동인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의 활동은 현학적인 것이며, 사치스러운 것이며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없이 이 시대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논 평

본 글은 기독교대학 설립운동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들과 함정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창조는 물론이려니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우주적인 사건의 중심이 다른 모든 관계들 중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운동, 그 중에서도 기독교대학 설립운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하나님 관계회복보다, 하나님-피조물, 인간-피조물, 피조물-피조물 등의 관계회복을 앞세우거나 동등하게 둘 때 생기게 될 문제점들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의 하나님-인간 관계중심의 견해는 최근의 세계관 운동이 사변화, 학습대상화 되어간다는 우려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종말론이나 기독교 문화운동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짧은 글, 더구나 논문이 아닌 칼럼 형식의 글에서 치밀한 논증을 제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흐름들에 대한 필자의 "강성 반격"이란 점을 감안할 때 전거적 논증이 없이는 "감정 반격"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